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물 관련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DRR) 원칙

국가 지도자와 시민들은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 처한 나라와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물 관련 재난¹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위험경감(DRR) 전략과 조치들은 재난영향 지역이 폭발적인 감염병 대유행 진원지가 되는 것을 막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원칙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재난위험경감 관리자 및 코로나 19 관리자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전략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미래의 어느 때라도, 심지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과 관련된 재난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들은 물과 관련된 재난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의 코로나 19 환경에서 가장 긴급한 분야는 코로나 19 감염의 감소와 환자 치료 분야이다. 한편, 물 관련 재난위험은 코로나 19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당면한 문제다. 재난위험경감(DRR) 비상 대응과 코로나 19 의료 대응 사이의 상충은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 부정적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물 관련 재난의 영향권 지역이 감염병 대유행의 새로운 진원지나 집단감염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위험경감 전략수립을 비롯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제시한 원칙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재난위험경감 관리자 및 코로나 19 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재난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원칙은 물 관련 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재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원칙 1: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재난위험경감(DRR)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 원칙 2: 재난과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관리 대응조치를 통합한다.
- 원칙 3: 재난 발생 및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원칙 4: 재난위험관리 관계자들을 코로나 19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 원칙 5: 부족한 의료 자원을 재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원칙 6: 이재민을 코로나 19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 원칙 7: 코로나 19 환자들을 재난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 원칙 8: 코로나 19 로 봉쇄된 도시와 지역을 위한 긴급재난대피 지침을 개발한다.
- 원칙 9: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피하기 위해 재난위험경감 조치에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수행한다.
- 원칙 10: 동시 발생적 위험요소에 대처하고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¹ 물 관련 재난이란 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종류의 재난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폭우, 폭풍, 홍수, 가뭄, 산사태, 토석류, 해일, 만조, 액상화, 빙하호 붕괴 홍수(GLOF), 수질 오염 사고 등이 포함된다. 물 관련 재난은 인명 피해 측면에서 전체 자연재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과거 1,000 건의 주요 자연재해 중 90% 이상이 물로 인한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 대책과 홍수 또는 가뭄 복구 등 재난대책 양상은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복잡성이 존재한다.

원칙 1: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재난위험경감(DRR)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 코로나 19 대유행에 처한 나라와 도시에서 물 관련 재난이 임박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재난과 대유행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역의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단계적 의사결정과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한 업무가 과중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유행 상황과 재난위험경감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의사결정은 추후에 혼란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재난 및 대유행 위험 관리 전략과 조치를 통합하도록 한다. 재난위험경감 팀과 코로나 19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조언을 제공한다. 중요한 결정은 이들 전문가와 상의하여 내린다.
- 물 관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전력, 교통, 수도, 위생 등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점검 또는 복구하고 필수 의료 인력 및 재난위험경감 인력을 보호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재난위험경감 관리자에게 주요 기반 시설의 긴급 보호 계획 수립 및 복구 자재, 장비의 비상 공급 준비 등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관계자가 교대 근무 중이거나 코로나 19 로 인해 공공 업무가 중단되어 인력과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위험경감 관리자에게 비상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다.
- 지금 즉시 재난위험경감 관리자에게 대유행 상황에서 실행할 재난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요청한다. 우선순위는 병원,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보호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 19 하에서 재난위험경감 계획은 남성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자, 난민 및 국내 이재민, 무국적자, 일용직 노동자, 빈민가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만성질환자와 같은 코로나 19 취약자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성별, 연령, 인종, 만성질환 여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특정 집단에 따라 코로나 19 와 재난의 영향을 받는 개인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코로나 19 와 재난 모두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난안전대책 당국과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미 코로나 19 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충하는 책임 소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난과 코로나 19 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비상 운영 계획을 갖도록 조치한다.
- 개인위생, 특히 손 씻기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재난 중이나 재난 후에도 물 공급과 공공 위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적 및 재정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 국가 및 지역사회 재난위험경감 계획에 이 문서에서 제시한 원칙을 포함시킨다.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재난위험경감 관계자들에게 업무 연속성 계획(BCP)에 이 원칙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청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위험경감 관계자와 코로나 19 대책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원칙 2: 재난과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 관리에 대한 대응조치를 통합한다.

- 보건 부문을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킨다.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의 기본 대응 방식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기타 국제 지침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위험경감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 기반 대응 방식, 종합 비상대책, 모든 위험 요소 대응 방식, 사람 및 공동체 중심의 포괄적 대응 방식, 다면적이고 다학제적 협력, 모든 보건의료 시스템 기반 대응 방식, 그리고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다. 재난위험경감 협력 및 대응 절차를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위험 요소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 태풍과 토네이도 등의 최근 사례 및 대응대책 등을 신속하게 공유한다. 최근의 대응대책 대부분은 이 원칙에 반영되어 있다.
- 사회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특수 상황을 반영한 코로나 19 상황 중의 재난위험경감 대응 방식에 대한 상황별 대응지침 수립과 웨비나(인터넷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위험경감 관리자들과 관계자들이 물 관련 재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
- 재난 발생 전에 병원과 보건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위치도(Hazard Map)와 재난위험경감 조치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재난과 코로나 19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역과 시설 위치도를 작성한다. 위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의 이동을 피함으로써 감염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위험 요소 지도는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용수 공급 등의 재난과 대유행의 이중적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기존의 조기 경보 및 대피 체계를 검토하고 개선하여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대유행을 제한하고 지침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대피하고 대응하기 위한 간결하고 분명한 '조기 경보' 알림 메시지를 개발한다.
- 재난위험경감 및 코로나 19 위험 인식 향상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감염병 대유행을 포함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재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지식습득 등 준비 태세를 잘 갖추도록 한다. 재난 동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 재난관리팀이 재난의 사후 영향과 대응, 그리고 코로나 19 대응 조치의 정보 투명성을 유지한다. 일반 대중과 재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효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재난관리팀은 특히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요청과 도움을 줄 일반인을 연결하여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 청소년들의 행동이 질병 통제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코로나 19 확산 억제에 대한 협조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기존의 청소년 그룹들을 활성화한다.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 중 재난 관리, 구호, 복구 활동에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현지 협력자 동원과 같은 청소년 그룹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협력한다.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의 확보는 코로나 19 예방 및 신속한 재난 복구의 핵심적 요소이다.

원칙 3: 재난 발생 및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연재해로 인해 물 가용성이 낮아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자 감소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재난이 사람을 통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손 씻기, 폐기물 관리, 기타 대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 부족은 공중위생의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뭄으로 야기되는 위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물 관련 기반 시설, 특히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난과 대유행의 부수적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빗물 저장이나 하수 재이용을 포함한 오염되지 않은 대체 수원의 이용을 고려한다.
- 상수도 서비스의 재난위험경감 계획에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유행의 영향도 포함해야 한다. 질병의 대유행은 인력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료 센터, 물/공중위생 접근 지점, 응급 인력과 같은 다양한 채널의 모든 단계에 개인 위생 증진을 포함시켜야 한다.
- 특히 재난 시기에 질병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역사회의 하수에서 코로나 19의 감염원을 검출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증진시킨다. 하수기반역학조사(WBE)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상하수도 시스템으로부터 코로나 19의 잠재적 확산을 예측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상수도 사업자에게 업무연속성 계획에서 디지털 도구와 원격 자동화/모니터링 시스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수 상하수도 운영팀, 통제 센터, 실험실 직원 이외에는 가능하면 원격 근무하도록 한다. 현장 근무자의 경우 검역/격리 주기를 고려하여 서로 근무 교대가 겹치지 않아야 하고, 코로나 19 개인보호장비(PPE)를 제공받아야 한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홍수, 가뭄 대응과 복구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원칙 4: 재난위험관리 관계자들을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재난위험경감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19에 대해 교육하고 이들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향상시킨다. 재난 관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법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예시-안내 책자와 웨비나(인터넷 세미나) 등 활용) 매뉴얼과 일일 점검 목록에 재난위험경감 활동 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포함한다.
-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재난위험경감 관계자는 재난 대비/예방/복구 활동에 참여할 때 마스크와 같은 표준적인 코로나 19 보호구를 갖추어야 한다. 가능한 한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보호 장비와 코로나 19 개인용 보호 장비(PPE)를 비축한다. 감염병 대유행 시기 전에 재난위험경감 인력을 위한 개인용 보호 장비를 비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동료 또는 이재민 접촉에 따른 감염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 인력의 일일 자가 건강점검이 필요하다.
- 신속한 재난 방지/복구 요구와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재난위험경감 관계자들의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지역과 비감염 지역 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 담당 관리자의 검역/격리가 재난 상황모니터링과 경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원칙 5: 부족한 의료 자원을 재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병원과 의료시설을 재난대피 장소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건물과 시설은 재난위험 지도와 재난위험경감 계획상의 대피 장소에서 제외한다.
- 의료진과 시설, 장비는 재난 영향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 필수 발전 장비는 물 관련 재난(홍수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고 병원, 보건소, 의료시설에 예비 전원공급 장비를 제공한다.
 - 재난 관리 전문인력을 병원, 보건소, 의료시설에 조기 파견하여 재난위험경감 조치계획이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 필수 의료 장비와 자재를 재난초기 단계에 상층부로 이동시킨다.
 - 감염 지역을 고려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 재난으로 인해 물 공급과 공중위생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병원과 보건소, 의료시설에 우선적으로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시설을 제공한다.
 - 홍수터와 같은 재난위험 지역에 임시 코로나 19 병원 건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유행 대응 임시 의료시설 설치위치를 사전에 확보한다.
 - 재난이 임박하기 전에 비상대책 담당 의료진에 대한 재난위험경감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자연재해 위험 요소와 코로나 19 대유행의 결합효과로 인명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원칙 6: 이재민을 코로나 19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시설, 적절한 대피 절차를 갖춘 대피소를 포함하는 비상대피 계획을 즉시 작성 또는 개정한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대피 건물/시설의 적절한 환기를 확보한다. 이재민을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환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한 대피소와 공간을 사전에 확보한다. 코로나 19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갖춘 특정 대피소와 자가격리 환자를 위한 별도의 건물/시설/대피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가능한 한 우선적인 대피 방법으로 수직 대피를 권장한다. 이는 안전이 확보된 경우 대피자 자신이 있는 건물 또는 인근 건물의 2층 높이 이상으로 대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 대피는 대피 중 재난 상황과 마주칠 위험과 사고를 줄이고, 대피소 내 사람들의 밀집도를 낮추어 대피소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평지의 저지대 등 수직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대피자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높은 건물, 대피소, 기타 대피 가능한 공간의 수를 늘려 조기에 대피하도록 지역 공동체와 논의한다.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확인하여 사회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조기 대피와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 이재민에게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과 비누, 위생용품과 생리용품을 제공한다.
- 이재민의 체온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 이재민 사이에서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방지한다.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는 공황

상태에서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난과 코로나 19의 상황,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알리고 배포한다.

- 재난 발생 전에 재난 대피 키트에 마스크, 휴지, 비누, 타월, 온도계를 포함하도록 시민들에게 알린다.
- 감염병 대유행 하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자보다는 현금 기부를 요청한다. 지폐나 동전을 통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모든 지불 결제에서 전자 화폐 이체를 권장한다.

원칙 7: 코로나 19 환자들을 재난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 재난위험경감과 코로나 19 대응에서 최우선 사항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감염증의 의학적 통제 원칙에 따른 코로나 19 완화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의학적 원칙에는 1) 감염원의 제거, 2) 전파 경로 차단, 3) 취약 집단의 보호가 포함된다.
- 자가격리 중이거나 또는 지정 시설에 있는 코로나 19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 및 메시지 전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격리 시설로의 대피 계획, 대피 후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한다.

원칙 8: 코로나 19로 봉쇄된 도시와 지역을 위한 긴급재난대피 지침을 개발한다.

- 재난에 대응한 효과적인 대피와 안전을 확보하고, 공황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봉쇄 지역에 특별한 조기 경보를 발령한다.
- 공황 상태와 감염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상황을 위한 비상 긴급대피계획을 수립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제약의 해제를 포함하는 타임라인 형식에 기초한 재난 대응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봉쇄 중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한 지역과 대피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다.

원칙 9: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피하기 위해 재난위험경감 조치에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수행한다.

-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파국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재정 지원 요청에 전폭적인 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난 및 기후 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예산과 자금을 확보한다. 은행 및 보험회사와의 비상 재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대응 자금을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로나 19 상황에서 빠르게 등장하고 변화하는 다수의 위험에 대하여 재난위험경감 관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자금 조달과 지불을 보장한다.
- 재난과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물자와 서비스 조달을 위해 가격, 공급자, 납기, 사양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한 글로벌한 디지털 및 자료 중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위험 관리 역량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제조 능력의 부족, 공급 체인의 장기적 정체, 구매자들의 경쟁 같은 과제에 대처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접촉 감염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십자가 동아프리카의 재난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디지털 화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화 기반의 디지털 화폐와 같은 디지털 결제 메커니즘을 재난위험경감 거래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동시 발생한 코로나 19와 재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립이 아닌 세계적 연대가 필수적이다.

원칙 10: 동시 발생적 위험요소에 대처하고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국 정부와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재난과 그 영향에 관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 전 세계 기상/기후 기관들이 세계기상기구(WMO),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과 연계하여 코로나 19 태스크포스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특정 지역에서 식별 가능한 기상 및 기후 관련 위험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 가능한 물 관련 재난에 대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필요한 경우, 국제재난위험경감 및 인도적 지원 인력과 장비의 확보를 촉진하도록 준비한다.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국제재난위험경감 및 인도적 지원 인력과 장비가 피해를 입은 국가나 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 각국은 비자 발급, 검역 절차, 통관 절차, 그리고 감염병 대유행 시 안전한 지원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파견된 팀은 보호 키트를 갖춰야 한다. 국제지원팀이 코로나 19 피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 브리핑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이 작성한 ‘국제 재난 구호 및 초기 복구 지원의 국내 촉진 및 규제를 위한 지침(IDRL 지침)’의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
- 재난위험경감의 이러한 예를 따라, 감염병 대유행 정책과 규정을 관할하는 지역 기관의 설립에 대해 논의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지역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문제를 인식하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지역/국제 협력에 힘써 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방법으로 국경 개방을 논의하고 생필품의 교역과 사람들의 왕래를 증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민자, 그리고 재난과 기타 응급 사태로 발생한 난민에 대해 코로나 19 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과 관리를 고려한다.
- 위험 요소는 국경이나 정치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에 대비하고, 국경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협동 작업을 실시한다. 물, 공중위생과 개인위생, 에너지, 교육, 보건 및 영양, 생활, 아동과 사회보장, 대피소와 주택, 대중에게 열린 공간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 해결책을 검토한다.
- 자국 시민의 안전과 복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감염병 발생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국가에 대한 국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중 누군가에 대한 위협은 우리 모두에 대한 위협과 같다. 코로나 19 와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 능력치는 가장 약한 부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국내외의 위험을 이해하고 경감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협조하여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 19 는 국가 재난 위험 관리 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련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우리의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재건설하기 위한 복구 계획 수립을 지금 시작한다. 국가 및 지방 정부는 국가 및 지방의 재난 위험 경감 전략(센다이 프레임워크 목표, (e))에 생물학적 위험 요소와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재난이 제기한 과제는 미래의 위험 요소에 직면하여 공공 및 민간 시스템이 탄력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과 설계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
-